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48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2월 13일 (음력 12월 28일) 화요일

## 전남도는 '직무대행' 시대...업무차질 우려

이낙연 전남지사의 국무총리 발탁으로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인 전남도가 주요 인사의 공석 사태가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전례없는 대행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도지사가 당선되기 전까지 대행체제가 지속돼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양지문 전남개발공사는 전임 사장이 퇴임한 뒤 문규주 기획조정실장이 직무대행을 해왔지만 최근 행정안전부로 전출되면서 김정선 건설도시국장이 다시 대행을 맡게 됐다.

문 전 실장의 후임은 인사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말에 임명될 전망이다. 주순신 정책기획관이 직무대리를 하게 됐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공모로 선

### 전남개발공 사장·광양만권 경제청장 등 공백 장기화

#### “도지사 없어 행정 부족 상황서 주요요직 부재 우려”

정원 임용후보자가 산업자원부 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공모가 추진되면서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해 10월24일 전임 청장이 여수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한 광양경제청은 현재 강효석 행정개발본부장이 청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비리에 연루된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역시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연가와 병가 등을 잇따라 내면

서 지난해 9월 중순부터 테크노파크 정책 기획단장이 사실상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 이사회는 다음달초 원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낙미할 경우 대행체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말 임기가 만료된 전남 여성플라자 원장 역시 지방선거 때까지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이 대행을 맡는다.

이와함께 우기종 정부부지사가 신안·무

안·영암 박종영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재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어 도지사에 이어 정부부지사의 공백도 예상되고 있다.

우 부지사가 사퇴하면 전남도는 지사, 정부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행정부지사 등이 이른바 '빅 4' 가운데 지사 권한대행인 행정부지사만 남는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도지사가 없어도 그렇지만 조직에 힘이 빠져 있고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한 상황인데, 도청 주요요직과 산하기관장 등 곳곳에서 대행체제가 잇따라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상설특검

비른장당 유승민 대표의 8일 최형미 사인의 문단 내 성폭력 고발에 대해 “고은 사인의 시를 국정 교과서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의 이날 “현직 여검사의 고발에 이어서 최형미 사인이 고은 사인의 성추행 고발했다”며 “10년 사람이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됐더니 대한민국 수치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고은 사인에게 정말 추하게 느꼈다며 ‘권력 이용해서 성추행을 했다’면 정말 짜질 안 짜지라도 못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검사 성추행 사건은 진상조사단이 공정하게 수사를 못하는만큼 상설특별검사제도의 첫 도입을 주장한다”고 했다. 유 대표는 “여성 인권을 원수 주장하던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원들이 여기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당대표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에는 기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 자료 사진 = 뉴스시스

### 한솔페이퍼텍, 7개월만에

#### 노사분규 극적 합의 타결

전남지노위 중재로 파업 64일만에

지난 7개월간 끌어온 한솔페이퍼텍(전남 담양군 소재) 2017~2018년도 임·단협이 12일 극적으로 합의 타결됐다.

그간 노동조합은 4조33억대 도입, 상여금 인상, 각종 수당 신설을 포함한 56개 요구안을 주장하였고, 회사는 경영여건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노사는 해결의 실마리 없이 갈등을 계속하여 왔다.

이번에 노사가 합의한 주요내용은 기본 시급은 '17~18년도 최저시급으로 조정, 상여금 45%에서 60% 인상, 호봉승급 조정, 4조33억대 노사 합의 추진 등이다.

한편 한솔페이퍼텍은 지난 해 7월 노조가 설립되었고, 11월30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 이후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었으며, 노조는 12월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64일간 파업을 벌였다.

최근 교착상태에 있던 노사갈등은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의 대화추진과 사후조정으로 급반전 되었다. 노사는 노동위원회 중재하에 9일부터 11일까지 주말에도 집중적인 교섭을 벌였고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여 최종 합의 타결에 이르게 됐다.

김영중 전남지노위 위원장은 “이번 한솔페이퍼텍 노사 합의타결은 노동위원회 분조정정이 종료되었음에도 사후 조정을 통해 장기 분쟁을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이며 ‘향후에도 조정이 종료된 이후 노사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후조정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최남규 기자

## 민주평화당 “호남 광역단체장 3곳 중 최소 1곳 목표”

### “분당 후 밑바닥 여론 긍정적...민평당 돌풍 예상”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의원 등이 1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현장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하고 있다.

국민의당에서 분화된 민주평화당 중앙당 지도부가 창당 후 처음으로 첫발 광주를 찾아 “6월 지방선거에서 호남 광역단체장 3명 중 최소 1명은 당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조배숙 대표와 김경진 상임선대본부장, 최경환 대변인 등 당 지도부는 12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호남권 전략과 목표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당 지도부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전북지사 등 호남 광역 3곳 중 최소 1곳에서 당선자를 내는 게 목표고 지방의회의 경우 호남 광역과 기초의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결코 무리한 계획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조 대표는 “국민의당 분당 후, 안철수 대표와 결별 후 호남 밑바닥 여론이 상당히 긍정적 신호를 보내주고 있고 호응도도 높아 호남에서 민평당 바람, 민평당 돌풍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의 선거연대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김 선대본부장은 “중앙 정치에서는 협치할 건 하고 정책 연대도 가능하지만 호남선거에선 철저한 경쟁을 통해 승리를 이끌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합당은 어디서 나온 애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국회의원 재보선에 대해선 “출마 의사를 밝힌 분들이 몇 명 있어 공천 방식 등을 논의중이며, 설 연휴 이후에 그림이 나올 것이다. 현역 의원 출마 가능성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특히, 당의 정체성과 맞물려 5·18 특별법 국회 통과와 적폐 청산, 햇볕 정책 계승, 지역분권 등을 거듭 약속했다.

앞서 조배숙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호남정신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불평등 불합리를 타파하고 개혁으로 가는 정신이다. 호남정신을 전국적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하고, 그 길에 민평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노회찬



유승민

설날 연휴로 다음 호 20일자 발행합니다

# 두근두근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무한한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태양광발전소

육상과 해상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도시 속 조용한 청정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유기물의 광합작용을 이용한 광양바이오메스발전소(추진)

한국수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사업현황

한국수력원자력은 2005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추진하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이 함께 하는 내일의 희망공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